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509-519,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3.50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권경자[1], 하정희[2*]
[1]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원, [2]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on Emotional-Behavioral Autonomy

Kyung-Ja Kwon[1], Jung-Hee Ha[2*]
[1]**Graduate School of Human Service, Hanyang Cyber University**
[2]**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후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후에,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는 아버지-자녀 간 폐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운데 부모의 수입과 어머니의 학력이 행동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후,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는 어머니-자녀 간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에 영향 미치는 청소년의 부모요인,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아울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결과로써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이나 부모를 위한 상담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and behavioral autonom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autonomy was influenced b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father and adolescent and open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adolescent after controlling for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in step 2. Second, behavioral autonomy was affec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in step 1,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adolescent and self-esteem were the meaningful predictors of behavioral autonomy after controlling for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in step 2. Finally,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Emotional Autonomy, Behavioral Autonomy

*Corresponding Author: Jung-Hee Ha(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
Tel: +82-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Received February 8, 2018 Revised March 8,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점차로 독립의 욕구가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다. 부모로부터의 자율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욕구로 설명되며, 자율성이 뒷받침 될 경우 내면의 동기유지는 물론 창의성, 정보수용, 정보 활용이 커지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율적인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1]. 자율성 획득은 청소년기의 적응적인 면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2].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성숙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기도 한다[3]. 만약 자율성 발달이 적절한 시기에 긍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청소년의 적응에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4].

자율성에 대해 개념화한 Steinberg와 Silverberg[5]에 따르면, 자율성은 크게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으로 구분되어진다. 정서적 자율성이란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되는 과정을 일컫는 반면에[6], 행동적 자율성은 부모에게서 독립적으로 자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9].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특성을 긍정·부정적 특성으로 명확히 규명하긴 어려우나, 학자들마다 견해가 모아지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율성의 의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13], 정상적으로 자율성이 발달하고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14, 15].

또한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 내지 행동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정서적 자율성에 영향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3]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는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부모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하여 자율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청소년의 자율성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된 사실이나[15], 부모와 같은 환경적 변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내적인 특성 역시 자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련되는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중학생의 높은 자율성이 서로 관련되며[28] 자아존중감과 자율적인 행동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10], 높은 자율성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29]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 및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정서적·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은 물론, 자율성 증진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 개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

자율성이란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숙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49],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율성을 느끼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율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5]. 청소년과 가장 오랫동안 빈번하게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자율성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자율성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자율성은 크게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으로 구분되는데,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로부터의 의존 과정을

줄이고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서적 자율성은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들은 이를 '부모와의 분리'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여기는 특성이 크다[40]. 따라서 정서적 자율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이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애착을 상실한다고 여기는 등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7, 8]. 반면에 행동적 자율성은 부모에게서 독립적으로 자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9], 부모와 정서적 애착이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행동적 자율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행동적 자율성이 지나칠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11], 행동적 자율성은 높은 긍정정서와 낮은 부정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10], 연령의 증가에 따라 행동적 자율성도 높아지는[12] 등 행동적 자율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 수 발견할 수 있다.

2.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간의 관계

자율성은 청소년 시기의 발달과업이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이러한 자율성을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자율성의 긍정적 영향 혹은 부정적 영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모아지는 것은 청소년기의 자율성의 결과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13]. 가정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정서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사랑만큼 한 개인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지지해줄 수 있는 대상은 없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상정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 및 행동적 자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표상이 각각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4].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18, 19, 20] 및 문제행동여부[21], 비행여부[22], 행복감[23, 24]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정서적 자율성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행동적 자율성과는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과 성격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25, 26], 학령 후기 아동들에게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생긴 이후 그 시기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2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련되는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중학생의 높은 자율성이 서로 관련되며[28] 자아존중감과 자율적인 행동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10], 높은 자율성과 높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29]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Hodgins, Brown, 그리고 Carver[30]는 자율적인 동기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자율성 획득은 개인 내적 성숙에 의한 자연적인 과정인 동시에 개인의 환경적 맥락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31].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의 상대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 및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자아존중감, 자율성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자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정서적·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수준으로 측정되는데[32],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부모의 월 소득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부모-자녀 간 관계 및 자아존중감, 자율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 자율적,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가정의 수입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었다[33]. 또한, 생활수준과 학력이 높은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촉진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였으며, 학력이 낮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34]은 가정형편이나 부, 모 각각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음을 보여주었다.

3.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A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0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40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36부를 제외한 총 367명(남자 245명(66.8%), 여자 122명(33.2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Variables of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ypes	N	%
sex	man	245	66.8
	female	122	33.2
age	14	2	0.5
	15	42	11.4
	16	175	47.7
	17	148	40.3
age(man)	14	1	0.4
	15	25	10.2
	16	101	41.2
	17	118	48.2
age(female)	14	1	0.8
	15	17	13.9
	16	74	60.7
	17	30	24.6
monthly incomes	less than two million won	34	9.3
	more than two million won~less than four million won	153	41.7
	more than four million won	180	49.0
education level-father	less college education	89	24.3
	more college education	278	75.7
education level-mother	less college education	132	36.0
	more college education	235	64.0
parent living with children	parent living with children	347	94.6
	lone parents	18	4.9
	etc.	2	0.5

연구대상자의 개별특성 및 환경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와 17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상자 대다수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75.7%, 어머니는 64%가 4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었다.

3.2 측정도구

3.2.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척도

Olson과 Barmes가 개발한 PAC를 국내에서 [3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된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장애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부-개방적 의사소통, 부-폐쇄적 의사소통, 모-개방적 의사소통, 모-폐쇄적 의사소통 순으로 각각 .90, .85, .91, .84로 나타났다.

3.2.2 정서적 자율성 척도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4]등이 번역한 [36]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EAS는 부모에 대한 비의존성, 부모의 탈 이상화, 부모를 개인으로 지각하기,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등 4개 영역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에서 4개 문항(ex. "나에 대해서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과 관련이 적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나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된다고 판단하였고, EAS의 타당도 검증 연구[38]에서도 이 문항들이 가장 낮은 구성 타당도를 나타낸 바, 이를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37]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중고등학생 모두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3.2.3 행동적 자율성 척도

부모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4]이 번역한 "The Perspectives on Adolescent Decision Making

Questionaire(PADM, Bosma)"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취침시간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흡연 여부의 결정, 외모나 머리 모양의 결정, 용돈 사용의 결정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7]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a*)는 중학생이 .85, 고등학생이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3.2.4 자아존중감 척도

로젠버그가 1965년에 계발한 척도를 [3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아존중감 에 대한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a*)는 .72로 나타났다.

3.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경상도 A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3학교에 연구자가 총 6회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의 동의를 구하고 방문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 및 검사 실시 지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모두 설문참가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설문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5분이었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비롯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4.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와 모의 의사소통을 살펴볼 때, 폐쇄적 의사소통보다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자율성보다는 행동적 자율성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67)

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father-open communication	1.00	5.00	3.20	0.83
fa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1.00	5.00	2.47	0.76
motherr-open communication	1.20	5.00	3.45	0.81
mo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1.00	4.8	2.39	0.72
emotional autonomy	1.38	4.46	2.91	0.48
behavioral autonomy	1.70	5.00	3.68	0.57
self-esteem	1.20	4.80	3.47	0.51

4.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3을 통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36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monthly incomes	1									
2. education level-father	.32**	1								
3. education level-mother	.34**	.57**	1							
4. father-open communication	.07	.06	.06	1						
5. fa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3	-.02	.01	-.61**	1					
6. mother-open communication	.05	-.05	.01	.68**	-.42**	1				
7. mo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3	.07	.03	-.43**	.78**	-.56**	1			
8. emotional autonomy	-.01	.02	.02	-.56**	.51**	-.63**	.50**	1		
9. behavioral autonomy	.12*	.00	-.09	.17**	-.25**	.15**	-.27**	-.12*	1	
10.self-esteem	.26**	.15**	.10	.37**	-.40**	.39**	-.40**	-.35**	.26**	1

* $p<.05$ ** $p<.01$

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의 경제적 수준인 월수입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자율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자율성과 정적 상관을, 아버지의 폐쇄적 의사소통 및 어머니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자율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자율성과 부적 상관을, 행동적 자율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4.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 행동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4.3.1 정서적 자율성에 영향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variables,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on emotional autonomy

Variables	B	β	t	R^2 ($adj\,R^2$)	$\triangle R^2$	F
step 1						
monthly incomes	0.00	0.09	.32			
education level -father	0.02	0.01	.21	0.005 (0.000)		0.44
education level -mother	0.01	0.01	.18			
step 2						
father-open communication	-0.05	-0.08	-1.18			
fa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17	0.26**	3.25			
mother-open communication	-0.27	-0.45***	-6.91	0.472 (0.459)	0.467***	35.46***
mo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01	-0.01	-.12			
self-esteem	-0.05	-0.05	-1.17			

* p<.05 ** p<.01 *** p<.001

먼저, 1단계에서는 부모의 월수입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정서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부모의 월수입,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을 통제한 후,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설명 분산을 살펴본 결과, F값은 35.46(p<.001)으로 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설명 분산($\triangle R^2$)이 46.7%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을 46.7% 더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폐쇄적 의사소통(t=3.25, p<.01)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t=-6.91, p<.01)은 정서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가 폐쇄적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어머니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덜 할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2 행동적 자율성에 영향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만 포함된 1단계 위계모형에서는 F값이 2.89(p<.05)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약 3.1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서적 자율성을 3.11%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상태에서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F값이 5.60(p<.001)로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분산($\triangle R^2$)이 약 9.3%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행동적 자율성을 9.3% 정도 더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적 특성

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폐쇄적 의사소통(t=-2.18, p<.05)과 자아존중감(t=2.74, p<.01)이 행동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덜 할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율성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variables,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on behavioral autonomy

Variables	B	β	t	R^2 ($adj\,R^2$)	$\triangle R^2$	F
step 1						
monthly incomes	0.28	0.24*	2.45			
education level -father	0.07	0.05	.76	0.031 (0.020)		2.89*
education level -mother	-0.20	-0.17**	-2.63			
step 2						
father-open communication	0.06	0.08	.92			
fa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01	0.01	.05			
mother-open communication	-0.06	-0.09	-1.02	0.124 (0.102)	0.093***	5.60***
mother-dysfunctional communication	-0.17	-0.22*	-2.18			
self-esteem	0.18	0.16**	2.74			

* p<.05 ** p<.01 ***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후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 및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와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후에,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는 아버지-자녀 간 폐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에 대하여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아버지-자녀 간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덜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을 때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0]. 정서적 자율성에는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분리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서적 자율성은 지금까지 비행이나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지은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져 왔다[4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적용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에 비해 정서적 자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막혀있고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이 높아지며, 어머니와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정서적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개방적으로 하며 아버지와는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21].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원만한 정서적 분리와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폐쇄적 의사소통을 덜하고,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억압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청소년 자녀는 정서적 자율성을 보다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단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존중감이 행동적 자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운데 부모의 수입과 어머니의 학력이 행동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의 수입이 많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행동적 자율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후,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는 어머니-자녀 간의 폐쇄

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덜할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행동적 자율성은 환경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녀 스스로가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9].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안정된 정서경험이 전제되기 때문에, 행동적 자율성이 높을 경우 청소년들은 더 주도적이며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10] 우울 및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된다[4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의견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특성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촉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33], 자녀에게 더욱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31]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43]. 따라서, 부모의 높은 소득 그 자체가 자율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모 소득이 높을 때 자녀와 촉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 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더 커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낮은 학력이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낮은 학력은 '4년대 이상' 과 '전문대 미만'의 학력 구분에서 설정한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덜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율성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청소년 개인 내적인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하게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을 초월하여 상호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상호작용이다[44, 45] [46]은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며, 자녀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내재화하다가 결국 우울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녀와 어머니 간에 의사 교환이 원활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부정적인 상호작용 위주의 의사소통한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감정 상태를 느끼기 어려워하고 긴장을 유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아울러, 행동적 자율성에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적 자율성의 증가가 청소년들의 낮은 우울과 높은 자기가치감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47].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함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라고 지각하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와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에 영향 미치는 청소년의 부모요인, 청소년의 내적 요인, 아울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행동적 자율성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행동적으로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각각 파악하여 청소년의 자율성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이나 부모를 위한 개인 상담 시에도 청소년의 자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대화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 선정 시에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이 결과를 모든 청

소년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에는 균일한 수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 연구에서 성별로 남녀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학생 전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행동적 자율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48] 것을 볼 수 있듯이, 추후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남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References

[1] Deci, E. L. & Flaste, R. "*Why we do what we do : the dynamics of personal autonomy*", Eco-Library, 2011.

[2] Havighurst, R. J.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 H. S. Park. & J. H. Ha. "The effects of the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level and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on anger expression method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89-110, 2007.

[4] J. K. Chung., K. J. Oh., K. J. Moon., & A. R. Cho. "Adolescents' perception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juvenile delinquency: Mediational effect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utonom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755-770, 2005.
DOI: http://doi.org/10.15842/kjcp.2005.24.4.003

[5] Steinberg, L. & Silverberg, S. B.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41-851, 1986.
DOI: https://doi.org/10.2307/1130361

[6] Noom, M. J., Deković, M., & Meeus, W.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adolescent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77-595, 2001.
DOI: https://doi.org/10.1023/A:1010400721676

[7] H. H.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autonom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linquency in early adolescenc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monitor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151-168, 2005.

[8] Coleman, J. C., & Hendry, L. B. "*The nature of adolescence* (2nd edn)", Florence, KY: Taylor & Frances, 1990.

[9] K. H. Kim. "Moral emotion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consequence for understanding guil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1), 35-55, 2002.

[10] Y. H. Kim. "The effect of parent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ttachment on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ehavioral autonom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107-124, 2009.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9.14.1.007

[11] Smetana, J. G. & Asquith, P.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1994.
DOI: https://doi.org/10.2307/1131311

[12] Bosma, H. A., Jackson, S. E., Zijsling, D. H., Zani, B., Cicognani, E., Xerri, M. L., & Charman, L. I. Z. "Who has the final say? Decisions on adolescent behaviour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9(3), 277-291, 1996.
DOI: https://doi.org/10.1006/jado.1996.0025

[13]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 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1994.
DOI: https://doi.org/10.2307/1131374

[14] Boykin McElhaney, K. & Allen, J. P.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Child Development*, 72(1), 220-235, 2001.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275

[15]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2001.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298

[16] S. M. Kwon.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Hakjisa, 2011.

[17] H. S. Kim. *"Influence of mother's self differentiation recognized by adolescents on their autonomy : Based 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1.

[18] O.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mmunication standar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cholastic achievement*", The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01.

[19] S. M. Jung.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graduate school of Konyang University, 2007.

[20] J. S. Kim. & C. S. Hu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4), 1261-1280, 2005.

[21] Y. M. Jung. *"A study o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7.

[22] G. N. Park.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Focusing on the family of normal adolescents and latent juvenile delinquent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23] N. Y. Ahn. & Y. D. You.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5), 3201-3215,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5.201310.3201

[24] Y. H. Kim. & M. H. Kang.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35-54, 2008.

[25] S. J. Sim. *"An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apta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3.

[26] H. U.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area of Jeollanam-do",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443-458, 2003.

[27] Coleman, P. G., , Ivani-Chalian, C., & Robinson, M. "Self-Esteem and its Sources: Stability and Change in Later Life", *Ageing & Society*, 13(2), 171-192. DOI: https://doi.org/10.1017/S0144686X00000842

[28] H. H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onomy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ffective parent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 155-175, 2009.

[29] M. H. Lee. & A. Y. Kim.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57-174, 2008. DOI: http://doi.org/10.21193/kjspp.2008.22.4.010

[30] Hodgins, H. S., Brown, A. B., & Carver, B. "Autonomy and control motivation and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6, 2007. DOI: https://doi.org/10.1080/15298860601118769

[31] M. J. Lee.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autonomy as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10.

[32] H. J. Oh.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adolescent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Comparison between alpha girls' group and general girls' group"*,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10.

[33] Y. S. Han. "*Study of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and children's alien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34] Y. S. Lee. & J. O. Kim.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33-159, 2002.

[35] Y. H. Ki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The graduate school of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1990.

[36] Steinberg, L. & Silverberg, S. B.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1986. DOI: https://doi.org/10.2307/1130361

[37] J. S. Ch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otional autonomy, behavioral autonomy, children'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s-children conflict: Focusing on the gender and Ag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0.

[38] Schmitz, M. F. & Baer, J. C. "The Vicissitudes of Measur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Autonomy Scale", *Child Development,* 72(1), 207-219.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274

[39] B. J. Jon. "Self-Est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1974.

[40] Ryan, R. M. & Lynch, J. H.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2), 340-356, 1989. DOI: https://doi.org/10.2307/1130981

[41] K. S. Hwang. "*The influence of parental bringing-up method and significant others on juvenile delinquenc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9.

[42] S. Y. Jeon.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69-179, 2007.

[43] Y. S. Lee. & J. O. Kim.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33-159, 2002.

[44] Satir,, V.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1972.

[45] S. H. Ji.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13.

[46] S. H. Lee., O. K. Lee., & J. H. Kim. "Family structure,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chool adjustme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 9(1), 1-31, 2005.

[47] Smetana, J. G., Campione Barr, N., & Daddis, C. "Longitudinal development of family decision making: Defining healthy behavioral autonomy for middle 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5), 1418-1434,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749.x

[48] J. H. Kim. & J. J. Kang. "An influence of care and overprotection on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p. 137-138, 2008.

[49] Greenberger, E., Josselson, R., Knerr, C., & Kneww, B.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127-143, 1975. DOI: https://doi.org/10.1007/BF01537437

권 경 자(Kyung-Ja Kwom)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석사)
- 2016년 6월 : 템플턴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미술심리치료학박사)

<관심분야>
청소년, 만학도, 미술치료, 의사소통, 자율성, 자존감, 우울, 불안, 대인관계, 장애인권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상담심리전공)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청소년의 적응, 애도 및 상실, 다문화 상담